

강·이 단일화 합의... 광주시장 선거 '兩強 대결'

〈강운태·이용섭〉

〈양강〉

姜·李 4개 합의 안

- ① 시기는 늦어도 28일까지
- ② 방법은 시민여론조사
- ③ 2명씩 참여 TF팀 가동
- ④ 단일화 후 선거캠프 통합

구체적 시기·방법 싸고
치열한 주도권 다툼 예상

단일화 최종 성사 땀
윤장현 후보와 '빅매치'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강운태 광주시장 후보와 이용섭 의원이 무소속 광주시장 후보 단일화에 전격 합의하고 늦어도 오는 28일까지 단일화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3면〉 두 예비후보는 14일 광주시의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김한길 두 사람의 밀실야합으로 공천된 낙하산 후보를 반드시 떨어뜨려 광주의 정체성과 광주시민의 자존심을 되찾고 한국 정치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무소속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다.

단일화 시기와 관련해 두 후보는 "늦어도 오는 28일까지로 하되, 최적의 시기라고 판단되면 더 앞당길 수 있다"고 말했다. 단일화 방법과 관련해서는 "시민여론조사로 하되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다른 방법도 검토될 수 있다"고 밝혔다.

두 후보 측은 단일화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양측 각 2명씩이 참여하는 실무 태스크포스(TF)팀을 이날부터 구성해 가동하기로 했다.

TF팀은 가장 적합한 단일화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강 후보와 이 후보는 "누구로 단일화되든지 간에 양 선거캠프를 통합하는 등 단일후보의 당선에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강 후보는 "단일화에 합의한 만큼 단일화가 안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면서 "현



맞잡은 손 새정치민주연합의 광주시장 전략공천에 반발해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강운태(오른쪽), 이용섭 광주시장 예비후보가 14일 광주시의회 기자회견에서 후보단일화를 위한 합의내용을 발표한 뒤 손을 맞잡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실적으로 같이 출마하는 경우는 없다고 봐도 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당위의 문제다. 없어야 한다"며 단일화는 시민과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두 사람이 단일화에 전격적으로 합의한 것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략공천에 대한 반발과 단일화를 요구하는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앞으로 두 후보 간 최종 단일화를 놓고 넘어야 할 산은 남아있다. 구체적인 시기와 단일화 방식을 놓고 양측의 치열한 주도권 다툼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날 두 후보 간 단일화 합의에 따라 광주시장 선거는 새정치민주연합 윤장현 후보 대 무소속 단일후보간 양강 구도로 재편될 가능성이 커졌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오늘부터 후보자 등록... 지방선거 '스타트'

16일까지... 22일부터 선거운동

6·4 지방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15~16일 이틀간 전국적으로 일제히 진행된다. 이에 따라 여야, 무소속 후보들은 등록과 함께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려 본격적인 선거운동 준비에 들어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6회 지방선거에서 전국적으로 시·도 지사 및 교육감 각 17명, 구·시·군의 장 226명, 시·도의회 의원 789명, 구·시·군의회 의원 2898명, 교육의원 5명(제주특별자치도만 해당) 등 총

3952명을 선출한다고 14일 밝혔다.

광주의 경우 기초단체장 5명, 광역의원 22명(비례 3명 포함), 기초의원 68명(비례 9명 포함)을, 전남의 경우 기초단체장 22명, 광역의원 58명(비례 6명 포함), 기초의원 243명(비례 32명 포함)을 각각 선출한다.

후보자 등록 신청기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16일 후보자등록이 마감되면 정당 및 후보자 기호를 결정한다.

선관위는 홈페이지(www.nec.go.kr)를 통해 후보자의 경력·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 납부 및 제남사항을 선거일까지

공개한다.

후보자의 공식 선거운동은 22일부터 가능하며, 일반 유권자도 인터넷,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방법을 제외하고는 22일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한편, 지방선거 본선 후보로 나설 현역의원 10명은 15~16일 공식 후보등록을 하면서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전남지사 최종 후보로 확정된 이낙연 의원은 15일 의원직을 사퇴할 예정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국 國富 1경630조원... 1인당 2억1천만원

한국의 국부가 1경630조원대로 국내총생산(GDP)의 7.7배 수준인 것으로 추계됐다.

이 중 개인 부문인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보유 규모를 구매력평가 환율로 환산하면 4인 기준 가구당 57만달러대로 미국

의 63%, 일본의 82%에 달했다.

자본생산성을 보여주는 자본서비스물량 증가율은 1980년대는 1980년대 11.4%에 달했으나, 외환위기와 글로벌금융위기를 거치며 크게 둔화해 2012년에는 4.0%에 그쳤다.

한국의 국부인 국민순자산(자산-부채)은 1경630조6000억원이다. 국민 1인당 2억1259만원인 셈이다. 1년 전과 비교하면 국민순자산은 464조6000억원이 늘었다. 자산유형별로는 토지가 전체의 52.7%를 차지했고, 건설자산 36.2%, 설비자산 6.2%, 지식재산생산물 2.4% 등의 순이다. /연합뉴스



박지성이 14일 오전 경기도 수원 박지성축구센터에서 '은퇴 선언 및 결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마워 캡틴차"

'축구의 별' 박지성 은퇴

한국 축구팬들의 잠잠을 설치게 했던 '캡틴' 박지성(33)이 그라운드를 떠난다. 〈관련기사 20면〉

고흥 출신의 박지성은 14일 수원 박지성축구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가 선수 생활을 마무리한다는 것을 전하게 됐다. 무릎 상태가 다음 시즌을 버티기 어렵다고 판단해 은퇴를 결정하게 됐다"며 은퇴를 선언했다.

이로써 1990년 수원 세류초 4학년을 시작으로 명지대-교토상가(일본)-에인트호벤(네덜란드)-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잉글랜드)-퀸즈파크 레인저스(QPR·잉글랜드)-에인트호벤으로 이어진 박지성의 축구 인생은 역사로 남게 됐다.

작은 체구와 평발이라는 약점을 성실함과 영리한 플레이로 만회했던 그는 한국인 최초의 프리미어리거로 유럽 무대에서는 물론 월드컵 무대에서도 활약하며 한국 축구계에 큰 획을 그었다. 하지만 2011년 1월 국가대표직을 내려놓은 박지성은 고질적인 무릎 통증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QPR과의 계약을 1년 남겨놓고 유니폼을 벗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바람도 시간도 쉬어가는 '천사 섬' 증도·임자도 ▶18면

학교설립 60주년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학부 605-1114, 대학원 605-1115

탐승 476명 구조 172명
실종 23명 사망 281명
※ 세월호 참사 29일째
14일 오후 8시 현재 ▶관련기사 6면

※음이온: 혈액순환과 원기회복에 탁월한 공기의 비타민

녹색의 땅 전남 Green Jeonnam

은퇴를 준비하십니까?

따뜻한 남쪽의 땅 } 전남으로 오십시오.
은퇴자들의 천국 }
한국의 플로리다 }

- 공기가 가장 깨끗합니다.
- 일조량이 가장 많습니다.
- 음이온도 가장 많습니다.
- 생활비·난방비가 적게 듭니다.
- 행복지수가 가장 높습니다.
- 스트레스가 가장 적습니다.

전라남도 행복마을과 061-286-3531~2

구례 오미마을